

진안군서 즐기는 ‘벚꽃엔딩’

고원성 기후 특성으로 늦게 개화... 마이산 남부·데미샘 벚꽃길 15일경 만개 예상

진안군은 늦은 벚꽃을 만끽하기 위한 상춘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군은 지난 11일 기준 마이산 남부 지역의 벚꽃 개화율은 현재 30% 수준으로, 오는 15일경 만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안군은 해발 평균고도 400m의 고원성 기후의 특성으로 '전국에서 늦게 피는 벚꽃'으로 유명하다.

그 중에서도 마이산 남부의 벚꽃은 늦게 피는 만큼 그 화려함이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한다.

'한국관광 100선'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마이산은 그 산을 보는 즐거움도 크지만 봄이 되면 이산묘와 탑사를 잇는 2.5km의 벚꽃 터널이 오래된 나무의 큰 규모만큼이나 아름답게 꽃을 피워 봄마다 상춘객들로 줄을 세운다. 각종 드라마와 '펜스토크' 등에는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소개된 탑영계 인근의 벚꽃은 11일 오전 기준 개화율이 30%이다.

또한 백운면 반송리에서 십림리 장수군 경계까지 이어지는 7.2km 구간으로, 섬진강 발원지인 데미샘으로 향하



진안군은 늦은 벚꽃을 만끽하기 위한 상춘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는 길이다.

주변은 한적한 산골 마을과 농촌 풍경이 어우러져 더 소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해발 850m의 높은 위치에 있는 데미샘 자연휴양림에서 서구이재 정상까지의 길은 11일 오전 개화율이 30%에 달해 다음 주 중반에 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절정의 벚꽃을 놓쳐서 아쉬웠던 분들은 늦게 피는 벚꽃을 볼 수 있는 진안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올 봄 벚꽃엔딩을 화려하게 보낼 수 있는 명소인 만큼 많은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전북연구원, 정책간담회

진안군 정책 비전·방향 공유·지역발전 모색

진안군은 지난 11일 군정 상황실에서 전춘성 군수와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진안군의 정책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여,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발전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농생명산업지구 명품출삼집적화단지 조성,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치유관광거점 조성, △진안군 의료원 국립화 방안, △축산단지 약취저감 대책, △용담호 수변구역 변경(해제), △용담호 하천관리지구 변경 총 6건이 논의됐다.

전북연구원은 중앙부처와 전북특별

자치도의 정책 동향 및 대응계획, 정책 사항을 제시했으며, 군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보완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남호 원장은 "진안군은 마이산, 용담호, 홍산 등과 같은 다양한 발전 자원을 가지고 있다"며, "성공시대를 열아가는 미래 진안의 길에 전북연구원이 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생태관광치유도시 진안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많은 협력과 도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최훈식 장수군수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개발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을 중심으로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국 릴레이 캠페인이다.

최훈식 군수는 황인홍 무주군수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권익현 부안군수를 지목해 지역 간 협력과 연대의 메시지를 이어갔다.

최훈식 군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는 더이상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우리군은 그동안 출산·정착·청년·고령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NH농협 장수군지부, 장수군에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

장수군은 NH농협 장수군지부(지부장 김성수)가 지난 11일 장수군에 제휴카드 적립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NH농협은행과 장수군 간 공동협약에 따라 지난해 1년간 장수군청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액의 0.2~1.0%를 장수군 발전 기금으로 적립한 것이다.

이번에 전달한 기금은 5,097만원으로 지난해 4,957만원보다 2.82% 증가했다.

장수군지부는 2012년 농협은행 출범 이후 협약을 맺은 농협카드 적립금으로 현재까지 장수군에 3억 1,710만 원을 전달했다.

김성수 지부장은 "NH농협은행이 지역발전을 위해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농업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제휴를 통해 적립된 기금이 장수군 발전을 위해 활용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NH농협은행의 장수 발전을 위한 노력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세외수입 운영 실적 우수시군 평가 '대상'

진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세외수입 운영 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대상(군부 1위)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2024년도 결산기준 세외수입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총 6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평가 항목에서는 도 세외수입 징수율, 군 세외수입 징수율, 전년 대비 세외수입 징수율 증감률,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정리보류 및 세외수입 우수사례 제출·발표 실적이 포함됐다.

군은 이번 수상으로 기관 표창과 700만원의 시상금(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 세외수입 운영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 역량 개발과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발대식 가져

진안군은 2025년도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로 선발된 42명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용담호 관리 활동에 들어갔다.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는 2008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해 올해로 17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개선에 커다란 기여 해왔다.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개최된 발대식에는 동창육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용태 도의원, 민간단체인 용담호수질개선추진협의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지킴이 발대식을 축하했으며, 지킴이 42명의 수질자율관리 필요성 및 직무교육과 지킴이로서의 자세를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 시간을 가졌다.

한편,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는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쓰레기 투기·불법 낚시·어로행위,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유입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한 감시 및 계도, 하천정화, 방치쓰레기수거 등의 활동을 펼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민들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무주읍 남대천변 일원서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무주군민들이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무주읍 남대천변 일원에서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했으며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송재호 무주군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150여 명의 주민들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생활 속 걷기를 통해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고 지역 내 인지도를 높여 군민 공감

대를 형성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무주군체육회 여성체육위원회(위원장 김민서)가 주최·주관했다.

참가자들은 무주읍 당산대교 아래 공터에서 개회식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퍼포먼스 동참 후 쓰레기 줄기(당산대교~소이나루공원) 등에도 함께 했다.

참가 주민들은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 최종 개최지가 되고 무주에서도 꼭 태권도와 펜싱, 산악자전거 대회가

열리게 되면 좋겠다"라며 "벚꽃 흐드러지게 핀 봄 길을 걸으며 올림픽을 향한 마음을 전하고 환경 정화까지도 할 수 있어 흐뭇했다"고 입을 모았다.

무주군민들은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결의대회"와 1월 현장 평가 실사에도 동참해 유치 기원 열기를 보여준 바 있다. 한편, 2036 올림픽 개최지 최종 결정 시기는 미정으로 전북은 앞으로 인도(아마다바드), 카타르(도하) 등 세계 10여 개 국가 도시들과 개최권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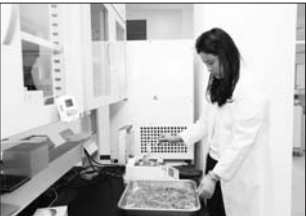
무주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실시

무주군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퇴비를 채취해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내 농업과학관 1층 종합분석실로 방문하면 된다.

퇴비 채취 방법은 퇴비가 쌓여있는 데미의 5~10개 지점에서 2kg 이상을 채취한 후 잘 섞어 500g가량을 정해진

시료 병부에 담으면 된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장 규모 1,500㎡ 미만의 농가는 1년에 한 번, 1,500㎡ 이상인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분뇨처리 업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곡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